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만성질환 경제, 구조개혁으로 치유”

노동·규제 개혁 통해 역동적 환경으로 경제 체질 바꿔야

임윤희 기자 yunis@mtl.co.kr



●한국경제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과거 두 번의 큰 금융위기와 성격은 다르지만 체감 경기는 만만치 않다. <더리더>는 경제위기와 인연이 깊은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엔 금융위원장으로 활약하고, 1997년 외환 위기에는 한국정부의 초청으로 귀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특보를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주인공이다. 전 이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뒤 미국으로 건너가 인디애나대에서 경제학 석사, 경영학 석사(MBA)와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80년대 초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영학 교수를 역임하다 86년 세계은행(World Bank)으로 자리를 옮겨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해왔다. 25년간의 국외 생활을 접고 국내로 들어온 건 외환위기 때문이었다. 귀국 후에도 화려한 이력은 계속된다. 참여정부에서는 국제금융대사를, 이명박 정부에서는 초대 금융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금융정책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우리 금융그룹 부회장과 딜로이트코리아 회장, 포스코 이사회 의장 등 민간기업에서도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3년까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뒤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임 후 올 초부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삼성동 무역센터에 위치한 세계경제연구원에서 지난달 17일 전 이사장을 만났다.

—— 올 1월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직을 맡았다. 취임 후 몇 개월간 어떻게 지냈나
일생을 돌이켜보면 해외생활 25년, 국내 20년, 참 인생을 바쁘게 살았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지난 6개월은 그중에서도 가장 바빴다. 과거에 맡은 여러 조직은 대개 큰 조직이어서 크고 작은 일을 내 손으로 직접 챙기는 환경은 아니었다. 예상하시겠지만 우리 연구원은 미션은 크지만 과거 조직보단 작아서 직접 뛰어야 하는 일이 많았다. 25년의 전통을 가진 기관이지만 앞으로 연구원의 활동을 더 강화, 확대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미션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동 영역을 넓히는 일을 추진

했다. 상반기에 일곱 차례에 걸쳐 국제적 석학인 하버드, 컬럼비아대학 등의 글로벌 리더들과의 조찬 포럼을 가졌다. 그간 못했던 국제 콘퍼런스도 5월 부산에서 마쳤다.
—— 사공일 명예이사장은 ‘실력’을 첫 번째 리더십 덕목으로 꼽았다. 이사장님이 중시하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7~8년 전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 초청을 받았다. 그때 미래 리더들이 가질 리더십의 조건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했던 답이 이 질문의 답이 될 것 같다. 세 가지를 가진 리더가 많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식(intelligence), 통찰력(insight), 진실성(integrity)이다. 지식은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거기에 미래를 보는 식견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력이나 조건 못 지않게 중요하게 진실성이다. 이 세 가지가 오늘날 미래 리더들이 가질 덕목이라고 본다.

—— 세계경제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소개해달라
우리 연구원의 미션은 급변하는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흐름을 빠르게 인지하고 세계적 리더들로부터 그들의 통찰력을 공유해서 정부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확실성의 시대에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일을 추진한다면 크게 세 가지 주요 사업이 있다. 첫 번째로 인터넷이나 책자를 통해 만나왔던 세계적 리더들의 생각을 조찬 포럼을 통해 직접 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월 2회 진행한다. 잭 웰치 전 GE 회장은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

제 리더십의 식견을 가진 사람과 네트워킹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 특정 주제를 선정해 국제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이것이 두 번째 주요 사업으로 글로벌 리더뿐만 아니라 대표적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세 번째로는 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세미나인데, 이때엔 해외보다 국내 우수한 분들을 중심으로 한다. 앞으로는 기업이나 정부 그리고 국책기관이 참여해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공유하는 장을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연구원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큰 틀에선 지속적으로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꾸려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슈토픽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 올 상반기에 일곱 차례 진행된 포럼의 주제는 대부분 국제 금융 이슈에 대한 것이었다. 그 분야에 특화한다기보다 개인적인 배경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차원이었다. 금융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이슈나 사회 문화 등 폭넓은 주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떠오르는 주제에도 초점을 맞춰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미중 간 무역전쟁 장기화로 더 큰 파장을 것 4차 산업혁명, 삶의 변화 가져와
—— “세계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는 말을 종종 하던데, 최근 가장 관심이 있는 세계 현상에 대해 말해달라
21세기 최대 사건인 미중 간 무역전쟁이다. 무역의 경제 충돌이라는 측면보다 세계사적인 충돌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21세기 패권 경쟁의 모습이다. 세계 정치 질서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건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것이 최근 가장 큰 관심사다. 산업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란 현대 역사에서 4번째 큰 변화에 관심이 많다. 인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올 것이고 AI는 각 산업과 연계해 큰 변화를 만들어낼